

# “종교성 바탕둔 교육학 필요”

## 7개종교학술대회 불교사상등 전인교육 제시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지난 15일 동국대동국관에서 ‘종교와 인격교육’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독교 대순진리회 무교(巫教) 등 한국의 대표적인 7개 종교의 인격교육을 조명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종교에서 1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석, 교육문제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불교학 발표자로 나선 김용표 연구원(동국대 佛文研)은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상이 석가모니불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인격상의 실현방법으로 △발보리심에 의한 종교적 회심(回心) △반야바라밀다(지혜)의 수행 △불성과 깨달음의 현전화(現前化) 등을 제시했다.

‘현대교육의 문제가 무명(無明)에서 오는 것’이라고 파악한 김씨는 “자신과 세계를 바르게 보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현대교육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토론자인 동국대 한명회교수는 “한국의 다종교상황에서 종교교육은 종파(宗派)교육보다 인격의 궁극적 변화를 야기하는 종교성(宗敎性)교육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점에서 불교사상은 전인(全人)교육의 목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학 발표자로 나선 성근관대 이기종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교육학은 서양식 이론 일본도”라며 “우리의 심성과 체질에 맞는 공통적인 종교성을 찾아 새로운 한국적 교육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심성과 체질에 맞는 한국적 교육학을 주창한 종교교육학회 학술회의.

### 첨성대 ‘범모양 佛塔’ 이색 주장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瞻星臺)가 불탑(佛塔)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공중유물전시관 전시과장 김순형 학예연구사는 건축전문지(플러스) 12월호에 기고한 ‘전통의 숨결’이란 글을 통해 ‘첨성대의 기단을 포함한 겹모습이 삼국시대의 장경총(長鏡塚:목간항아리)나 기대(器臺:그릇받침)의 겹모

습과 비슷하다’는 것. (대반열반경)에서 도토나 사문이 부처님의 사리를 8개국에 나눠주고 난 뒤 사리를 담았던 병과 다비후에 남은 재로 각각 병탑과 재탑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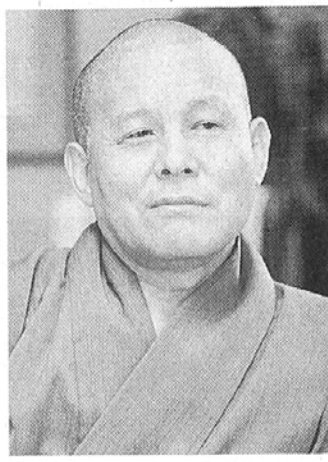
### ‘95 한국종교연감’ 제3호 출간

한국종교학회연구소(소장 윤이홍)가 ‘95 한국종교연감’ 제3호를 발간했다. (02)873-8676

“전통 내전의 전승은 물론, 외전까지 두루 겸비한 선·교회통의 인재양성할 계획입니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三學院) 개원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불교교과와 교학체계를 바탕으로 수행과 교학, 전통과 진보가 조화된 개방학림으로 삼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6월 16일 문을 연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5년간의 화엄학, 한국불교교과학 및 원전연구회의 탄탄한 교육활동과 각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연구위원회의 연구인력 및 학술 재원을 바탕으로 개설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

# “禪·教 회통한 인재 양성”

##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 여는 지관스님

### 1월3일 개원... “사학전당으로 육성”

삼학원은 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삼장(三藏)의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아함경전 및 근본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인 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화엄학과 한국불교교과학, 선전(禪典), 선수행 등을 수의과(隨意科) 필수로 지도하면서 교단밖에서 이루어진 진보적인 불교학 연구결과를 접수하게 된다. 그리고 불교 교유의 이수방법인 논강(論講) 및 전강(傳講)의 전법(傳法)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주요한 목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학자보다는 사상가의 양성이 ‘궁극적인 목표’인 삼학원의 이수대상자는 강원·중앙승가대·동국대 졸업 등의 학력과 석사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인이다. 이수과정은 1년과정의 예비과와 4년 과정의 본과로 짜여져 있다.

94년부터 상설 운영중인 예비과는 불교어학연수과정(받아 팔리어 티벳어 중 택일)과 일반어학연수과정(영·불·독·중어 중 택일), 불교문화·선종사·한국불교사상 교양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본과는 △아함경전강독(필수, 1년)과 △아비달마교과·중관불교·유가행불교·화엄교과 불교논서연찬(전공·선택, 3년간) △한국불교교과학·경덕전승론·선문승소송의 수의과 △2안거 이상 선수행(스님 필수) 등으로 진행된다.

지관스님은 “강주의 심의에 의한 전강을 통해 부족한 강사들을 양성하는등 종단 학림의 활성화와 공학(公學)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사학을 진흥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서교부 및 접수(1월3일~2월15일) (02)765-9602~3

김재경 기자

### 한철 선방에 듣고싶는데 경책올...

스님께서는 지리틀고 앉아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은사스님께서 이번 한 철만은 꼭 선방에서 보내라고 권하시기에 그로해서 인될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방부를 들었습니다. 경책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야산에서 한 학인)

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책적에 속자마세요. 경책의 말씀은 틀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날짐승 들짐승에서도 나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왜 경책을 못하십니까?

이 공부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죽어야 관 속으로 들어가지 죽지 않고서야 관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속자 마세요.

마음이란 선 것도 아니고 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몸 주그러서 매어놓는다고 통쾌한 소식 나올까요? 형식이 매이지 말고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스님께서 원하신다니까 고집스레 그렇다, 아니다 할 것은 없다 싶겠지만 마음으로 쫓겨서는 안됩니다. 이 몸통이가 그대로 토크인데, 내가 토크

밝은 줄 안다면 달이 난 것과 안 난 것을 한데 합쳐서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다 보고 듣고 통글게, 모나지 않게 소화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글게 말하고 통글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편이란 다름아니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행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편이란 말을 잘 아셔야 합니다.

### 마음공부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스님 마음공부도 전진이 없고 생활도 고달프기 이틀에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없으십시오.

(조종진·성남시 중원구 상대동)

내가 오히려 답답하군요. 그렇게 여러 번 놓고 살라고 알려드리지 않았던가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에 매달려서 헤어지지 못하는데 일부러 또 생각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풀뚝뚝 영킨 실타래처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지요.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질 않고 듣는 것도

### 지 상 상 담

##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애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양승려원 대(대)승에게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3-4162 팩스: (02)737-0698

을 끼고 다니면서, 내가 선방을 끼고 다니면서 따로 토크하고 선방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 말입니다. 토크에다 또 토크를 밀어 넣어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말 뜻을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 성불하신 분은 사바세계 안오는지

성불하신 분들은 다시 사바세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선주·광주 광산구)

다시 나오지 않고 나오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면 부처가 아니지요. 일체만물만생 모두가 나 아닌 게 없고 내 이름 아닌 게 없다면 구태어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분별하겠습니까? 지옥이든 천당이든 자유자재이지요. 증생이 있으니 부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 나도 없다고 그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천백억 화신으로 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말기는 것’ 외에 더 공부할 것은

스님께서는 자성참구의 방편으로 주인공에 되돌려 말기라고 하신데 그 외에 더 할 것은 없는가 여쭙습니다.

(최영조·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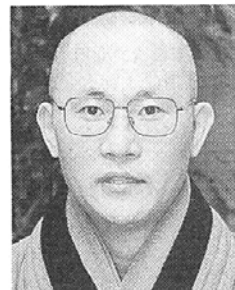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따져선 안됩니다. 공부를 진짜로 할려면 모나는 것도 통글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사물을 보고 이런저런 말이나 잡으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는

가지고 다니질 않고 만남도 가지고 다니질 않지요. 그냥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지어내서 그것을 뚱쳐가지고 다닙니다. 생각조차도 나면 나는대로 놓으려 했는데, 무쇠·잡쇠 따지는대로 용광로에 넣으면 재성이 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놓으려 했는데 끌어안고간다 이 말입니다. 나오면 또 넣고 나오면 또 넣고 마음의 용광로에 연방 넣고 연방 나오고 그러면 그뿐인데 그렇게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혼자 사는 삶입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데 혼자 먹고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게 다 더불어 한 것이고 내 몸 속의 생명체들과 또 더불어 하는 것인데 혼자했다, 내가했다, 자기가했다라고 고정된 생각을 하니가 답답한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남을 원망하고 무엇이든 탓을 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고달프고 짜증스럽고 할 수 밖에는.

놓고 살라고 하니가 어떤 분은 놓기는 커녕 놓는다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에 놓고 말기라니 주인공을 이력으로 찾고 형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일체제물의 마음이...’ 하는 내용이 있지요? 일체제물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일체제물의 몸이 내 몸이요 내 생명인데 하나로 돌아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법문을 들어서도 하냐요. 예를 해도 하나요 법당문을 나서도 하나입니다. 어디 부처마로 나마로, 너마로 나마로가 있습니까? 때로때로라고 생각해서 놓질 못하면 어디서서 걸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물리학박사로 東대학원 입학 청아스님

는 물리학박사 청아스님(38)은 “물리학으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불교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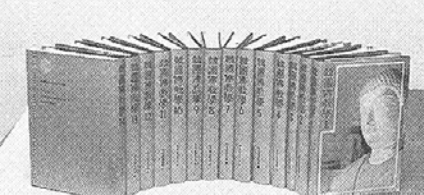
스님은 지난 92년 미국 오

리체제에 몰입되어 3년간 곧장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헤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참나를 발현시켜 참진리를 얻으려는 원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의 정수를 간직한 한국불교를

### “불교 배워야 물리학 눈떠”

하이우립대학에서 (초기우주에 붕괴되는 입자들의 우주론적 제약들(Cosmological Constraints On Early-Decaying Particles))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삼일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보다 근원적인 진

찾게됐다”고 말한다. “4차원의 인생에서 불교를 만난 인연으로 더이상 바랄게 없다”는 스님은 “세계최고의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교의 우수성을 물리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재)



△〈한국불교학〉 20집을 모은 영인본 전14권.

### ‘한국불교학’ 영인본 보존판 14권 펴내

한국불교학회의 학회지 〈한국불교학〉이 영인본으로 묶여져 나왔다. 이번엔 나온 영인본은 지금까지 발행된 학회지 20집을 모두 14권으로 묶었다.

한국불교학회장 김명태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그동안 불교학 연구성과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전달됐으나, 영인

본 발간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통로를 마련했다”며 “불교학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인본 14권에는 부록으로 2백50여점에 이르는 수록논문 및 필자별 논문 색인을 실었다. (02)723-3115~6

#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개원 및 전형 안내

## ■ 취지

일천육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온 한국불교는 원융한 교학전통과 찬연한 수행가풍을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교사 전체, 그리고 한국불교사를 通別의 世間的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성의 등 多事多難함이 長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무상함을 넘어 佛院의 慧明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佛燈의 찬연한 역사 가운데 눈에 띄게 된 것은 참으로 위대한 佛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장구하고 위대한 역사적 전통이 어느 한 사상이나 사조의 생명변화와 비전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며, 그 원천은 방대한 三藏의 敎學體系와 三學의 두터운 修行傳統이 일구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불교만의 이 탁월한 역사적 자산은 결국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계속되었던 교학과 수행으로 정립된 正法回歸精神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근본적 중흥 또한 佛院의 慧明과 佛燈의 수행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에 있으며, 민족의 교화와 인류애의 봉사 또한 이에 바탕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중흥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1991년 6월 16일 문을 연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研究院은 근 5년 간의 화엄학, 한국불교교과학 및 원전연구회의 탄탄한 교육활동과 각 대학 교수로 구성된 화동 중원 전문연구위원회의 연구인력 및 학술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교육중흥을 위한 원력을 제정비하고 교학과 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佛敎原典專門學林인 ‘三學院’을 개설한다.

## ■ 목적

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三藏의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아함경전 및 근본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 전수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화엄학, 한국불교교과학 및 禪典, 禪修行 등을 隨意科 필수로 지도하며, 아울러 교단 밖에서 이루어진 진보적인 불교학 연구결과를 접수하되 불교 교유의 탁월한 이수방법인 論講 및 傳講의 傳法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 ■ 이수대상자

1. 三藏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2. 講院·중앙승가대·동국대학교 졸업 등의 학력을 갖춘 자
3. 석사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자
4. 이상의 자격과 함께 본 연구원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이수과정

1. 예비과 (94년부터 상설 운영 중)
  - 어학연수 및 교양과정 (1년)
  - 불교어학 연수과정: 범어, 팔리어, 티베트어(택일)
  - 일반어학 연수과정: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택일)
  - 교 양 과 정: 불교문화학, 선종사, 한국불교사
2. 본 과
  - 아함경전강독(필수, 1년)
  - 불교논서연찬(전공 1, 선택 2, 3년간)
  - 아비달마교과(선택)
    - 중 관 불 교(中論, 大智度論)
    - 유가행 불 교(解深密經, 攝大衆論, 瑜珈師地論, 成唯識論)
    - 화 엄 교 학(大方廣佛華嚴經疏疏演義抄)
  - 수 의 과
    - 한국 불교학: 한국불교교과학(94년부터 상설 운영 중)
    - 禪典 강독: 景德傳燈錄, 禪門拈頌
  - 선 수 행 (비구, 비구니 필수)
    - 이수과정 중이나 이수 후 佛院에서 2안거 이상 수행 (수행 이력이 있는 경우 소급 인정)

## ■ 이수방법

- 제 1년 1. 불교어학연수 2. 아함경전강독 3. 금강학 4. 불교문화학 5. 일반어학연수
- 제 2년 1. 아비달마교과연찬 2. 화엄교학 3. 금강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 제 3년 1. 중관불교연찬 2. 경덕전승론 3. 금강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 제 4년 1. 유가행불교연찬 2. 선문승소 3. 금강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 제 5년 1. 선수행 2. 연구년(논문지도 및 정기 세미나)

## ■ 이수일정

- (※ 禪修行을 위해 매학기간 동안에 수업)
- 정기수업 (음력) 1996년 1월 20일 ~ 4월 10일 (양력) 1996년 3월 9일 ~ 5월 26일
- 후기수업 (음력) 1996년 7월 17일 ~ 10월 10일 (양력) 1996년 8월 30일 ~ 11월 20일

## ■ 졸업 후 지도 및 특전

1. 본과 입학 후 1회 이상 연구실적 발표 (심의 지도 후 불학술지 『伽山學報』에 게재)
2. 본과 이수 후 2년 이내 연구 결과 제출 심의 졸업
3. 졸업 후 연구위원회의 소속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

## ■ 전 강

- 강주의 심의에 의한 전강

##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 접

## ■ 제출서류

1. 스님
  - ①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② 수험이력서(1통)
  - ③ 최종학력증명서(1통)
  - ④ 최종학력증명서(1통)
  - ⑤ 추천서(학장, 본사 주지 또는 은사스님)
2. 일반
  - ①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② 이력서(1통)
  - ③ 최종학력증명서(1통)
  - ④ 경력증명서(비필)
  - ⑤ 추천서(소속 단체장, 또는 지도교수)

## ■ 전형일시 (이하 양력)

1. 입학원서 교부: 1996년 1월 1일~2월 15일
2. 입학원서 접수: 1996년 1월 1일~2월 15일
3. 전형일(면접): 1995년 3월 6일 (음력 1월 17일)
- \* 현재 연구위원회 회원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본과 입학 가능

## 문의처: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02)765-9602~3 FAX 02) 765-5673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研究院 院長 李智冠